# 美국무 "부차 학살 명령자 책임 물을 것"

### 나토 협의차 유럽행
### "러시아군 고의적인 군사행동
### 전세계 목격…증거 수집·문서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 학살 의혹에 대해 러시아군의 '고의적인 군사행동'이었다고 비난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로 향하기 직전 취재진에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서 물러나면서 그곳에 남긴 죽음과 파괴를 전 세계가 보고 있다"며 "특히 부차 지역에 남겨진 공포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말 그대로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부차에서 본 것은 악당 부대의 무작위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죽이고, 고문하고, 강간하고, 잔학행위를 저지르는 고의적인 군사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관련 보도들은 믿을 수 있는 것 이상"이라며 "증거는 세상이 보고 있는 그곳에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는 이런 행위를 저지르고 명령한 이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언젠가는, 또 어떻게 해서든 확실히 하려는 우리와 전 세계 국가의 결의를 강화한다"며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과 대(對)러시아 압박 강화에 대한 결의 역시 강해졌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부차 학살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 고위층이 명령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느냐는 질문에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과 유엔 인권이사회 조사위원회의 그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증거를 수집하려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련 증거를 수집해 문서화하고 다양한 조사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의 침략 직전에도 침공이 이뤄지면 잔학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었다"며 "끔찍하고 비극적이게도 부차 등지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유지·강화하고, 이 전쟁을 끝내고 러시아가 자행하는 죽음과 파괴를 중단시키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 주민들이 5일(현지시간) 타라스 세브첸코 기념비 앞에 촛불로 자국 지도를 그려 놓은 뒤 러시아군 침공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타라스 세브첸코(1814~1861)는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작가, 화가, 인문주의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연합뉴스

# 호주산 밀, 세계적 공급위기 '구원투수' 될까

### 강수량 충분해 작황 낙관적
### 미국 밀은 가뭄으로 흉작 예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밀 공급 부족이 심해지는 가운데 밀의 주요 수출국인 호주에서 밀 풍작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흑해를 통한 밀 수출이 급감했고 세계 밀 가격은 약 30% 상승했다. 이 때문에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호주 밀을 원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리서치업체 토머스엘더마케츠의 곡물 애널리스트 앤드루 화이틀로는 호주 동부에서 수개월의 집중호우로 토양 수분이 많아졌고 서부도 비가 충분히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우기를 앞두고 있어 밀 수확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이틀로는 밀 재배에서 중요한 것은 강우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곡물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호주는 2021~2022 시즌에 2750만t의 밀을 수출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유럽연합(EU) 3750만t, 러시아 3200만t 다음으로 많은 양이다. 다만 러시아가 제재로 인해 실제로 이만한 양을 수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세계 밀 수요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연간 밀·보리 수출의 4분의 1 이상, 옥수수 수출의 5분의 1, 해바라기유 수출의 상당량이 위협받고 있다.

밀은 전쟁 외에 기후 문제에도 직면했다. 화이틀로는 미국의 가뭄 악화가 별로 주목받지 못한다면서 이로 인해 미국 밀 수확이 매우 나빴던 2012년보다 더 저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모두 우크라이나만 보고 미국은 잊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봉쇄 기간이 연장된 중국 상하이에서 5일 보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격리된 주민들에게 전달할 식료품을 트럭에서 내리고 있다. 거주 인구가 약 2600만 명인 상하이시는 신규 감염자가 폭증해 애초 해제일로 잡았던 이날 이후로도 도시봉쇄가 계속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중국 '감염아동과 부모 분리' 정책 바꿔

### 외교문제 비화에 서명운동까지
### 상하이시 '동반시설' 운영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를 부모와 강제로 떼어 격리하는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이 비인도적 처사라는 안팎의 비판에 결국 어린이와 부모가 같이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6일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최근 시내 대형 코로나19 격리시설 중 한 곳인 푸둥 신국제엑스포센터 안에 어린이 치료 구역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5일 오전 8시까지 현재 이곳에는 총 177명의 가족이 들어왔는데 이 중 89명이 어린이 환자라고 차이신은 전했다. 다만 어린이 환자와 부모가 동반할 수 있는 하나의 임시 병원 가동이 중국의 '감염 아동-부모' 분리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중국은 그간 6세 미만의 어린이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를 부모와 반드시 분리해 어린이 전담 병원에 격리하는 정책을 펴왔다. 특히 어린이와 부모가 동시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에도 부모는 일반 격리 시설로, 어린이는 어린이 시설로 보내 중국 내부에서조차 비인도적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는 상하이의 한 병원 어린이 병동에서 신생아를 포함한 영유아가 한 병상에 다닥다닥 누워 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급속히 퍼졌는데 이를 계기로 부모와 격리된 어린이 환자에 관한 대중의 불안이 증폭됐다.

6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에도 온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돼야 체육관, 컨벤션 센터 등의 격리시설로 부모와 함께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자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도 빨리 감염돼 함께 격리될 수 있느냐고 묻는 부모도 있었다.

상하이에서 이미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19 감염이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으로 체육관, 컨벤션 센터 등에 '집중 격리'된 가운데 현재 중국에서 자녀를 둔 부모의 가장 큰 걱정은 코로나19에 걸리는 것 자체보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자녀와 강제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다.

어린이 환자와 부모를 분리하는 중국의 정책은 외교 문제로도 비화했다. 주상하이 프랑스 총영사관은 유럽연합 국가들을 대표해 지난달 31일자 상하이시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모와 자녀를 떼어 놓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베이징 주재 영국 대사관은 같은 날 중국 외교부에 보낸 별도 서한에서 중국 지방당국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미성년자들을 그들 부모로부터 분리한 최근 사례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일본 우주비행사 모집에 4천여명 지원

### 13년 전 대비 4.3배 급증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우주비행사 공개 모집에 4127명이 지원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진행된 JAXA의 우주비행사 모집 기간은 작년 12월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였다. 이번에 지원한 인원은 13년 전 대비 4.3배로 급증했다.

과거 모집 때와 달리 '자연과학계 대학 졸업자'라는 학력 제한을 철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원자의 연령대를 보면 30대 44.8%, 40대 23.6%, 20대 이하 19.7%, 50대 10.3%, 60대 이상 1.7% 순이다. 여성 비율은 22.3%다.

JAXA는 영어와 일반교양 시험, 신체 능력 측정, 지원자 발표 등 평가 과정을 거쳐 우주비행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2008년 선발 때는 여객기 조종사, 항공자위대 조종사, 의사 등 3명이 뽑혔다.

JAXA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주도하는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이번에 선발된 우주비행사가 달에 갈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1%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H가성비굿 건강보험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 | | | | | | | | | |
|---|---|---|---|---|---|---|---|---|---|
| 운암벽산지점 | 062)529-5335~6 | 쌍촌지점 | 062)381-6551~2 | 유동지점 | 062)512-1984~5 | 기아자동차지점 | 062)385-4977~8 | 동운지점 | 062)528-2640~2 |
| 상무동지점 | 062)372-3741~2 | 빛고을로지점 | 062)531-1213~5 | 농성지점 | 062)361-4472~4 | 운암지점 | 062)527-3295~6 | 버들지점 | 062)381-1971~2 |
| 용산지점 | 062)526-0222~3 | 화정지점 | 062)372-0421~3 | 동림지점 | 062)513-8521~3 | 유덕지점 | 062)373-3235~6 | 운천지점 | 062)371-2772~3 |
| 치평지점 | 062)381-8212~3 | 로컬푸드직매장 | 062)364-8400 | 유덕하나로마트 | 062)373-3235 | 하나로마트동림점 | 062)511-2901~3 | | |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